

#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15 회차 , 하나님의 형상, 1부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신의 형상, 1부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다른 여러 주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주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속의 하나님의 형상이며,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와 그 주제 자체가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살펴보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그의 첫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그의 통치와 통치를 대표하고, 그의 통치와 임재를 전체 창조물 속에 퍼뜨리도록 위임하신 곳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실패했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아담, 새로운 형상을 지닌 자로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이 하지 못한 것과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모든 약속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성취되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됩니다. 그 계획과 관련하여, 제가 방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고찰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그 계획과 움직임과 발전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시작점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있습니다. 1장 끝, 창조의 첫 부분인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수가  
 많아지고,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섹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의 창조 활동의 절정이자  
정점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그 주제를  
 구약성경 전체에서 추적하고, 그 후 신약성경에서 성취된 것으로도  
 추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통된 신학적 이해는,  
 만약 당신이 인간 교리를 논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논의를 다루는 체계적 신학 책을 집어든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보통  
 도덕적 관점과 지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됩니다. 그들은  
 도덕적, 지적, 합리적, 의지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이고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신의 측면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일부는 우리가 이미지를 더  
 이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미지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 즉 신의  
 속성이나 특성을 반영하는 이러한 캐릭터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지적인 의지적 존재가 되어 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신의 형상이 더 기능적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의 형상, 즉 신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한 것이 모든 창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의 맥락에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먼저 조금 이야기할 것은 이미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미지, 즉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인간을 이해하는 핵심은 이미지를 반영이나 표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것의 핵심은 아담과 이브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반영하거나 표현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논쟁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표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우리의 구성과 속성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한, 더 존재론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능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왕들이 부재 중에 땅에 자신의 동상이나 이미지를 세우는 관행을 지적하며, 그 이미지는 그들의 통치, 땅에서의 주권을 반영하거나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서의 앞 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음악 소리에 몸을 숙여 우상을 경배하라는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은 아마도 그의 통치, 땅에 대한 그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신의 형상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배경이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땅과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식을 소유하고, 지성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의지적인 존재이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 측면에서 그것을 더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구를 다스린다는 것을 더 기능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글썄요, 정경 전체를 종합해 볼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의지적이고,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존재임을 시사하지만, 이것이 다스리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창세기에서는 후자가 초점인 듯합니다. 창세기 1:26-28에서 저는 후자가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반영하고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립니다.

즉, 우리는 부통령이고, 우리는 신의 부통령이고, 우리는 신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우리는 신의 대표자로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대 근동의 왕이 자신의 주권과 땅의 통치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신의 동상이나 형상을 세웠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은 신의 형상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창조물 전체에 걸쳐 신의 통치를 반영하고, 대표하고, 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치 기능은 창세기 1장의 신의 형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부통령입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 전체에 걸쳐 그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의지적이고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이브는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절정에 이르렀고, 이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덕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지적으로 창조되었지만, 주로 하나님의 현존과 모든 창조물에 대한 통치의 대표자로서 기능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총독이 되도록 만들어졌고, 그들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레그 비얼은 그것이 땅을 채우고 다시 한번 창조물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퍼뜨릴 다른 형상을 지닌 자손을 낳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창세기 3장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라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 번 보았듯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인간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창조물 전체에 자신의 통치를 퍼뜨리려는 의도가 타락으로 인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거나 지워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훼손되고 망가졌으며 갱신과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는 창세기 3장이 구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물에서 인간에 대한 의도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은 타락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망가진 인간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가르치는 분기점이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우리는 지금 이 질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회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지닌 자로 회복시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성취하실까요? 그리고 한 단계, 즉 구약성서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신약성서로 이어지는 부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순으로 또는 정경적으로 어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구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 저는 시편 8장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시편이지만, 시편 8장은 창세기 1장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자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명확한 암시이기 때문에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장은 이상적인 아담과 아담이 성취해야 할 일, 또는 아담이 창조물과 관련하여 해야 했고 창조된 목적에 대해 상상합니다 . 그래서 저는 이 본문들 중 몇 개만 읽어드리겠지만,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의 창조 행위, 그리고 그가 자신을 대신하여 또는 그의 대표자로서 창조물을 다스리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존엄성에 대한 주제를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여, 당신의 이름은 온 땅에 얼마나 위엄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당신은 어린아이와 유아의 찬양을 통해 하늘에 당신의 영광을 두셨습니다.

당신은 복수자의 원수를 침묵시키기 위해 당신의 적들에 대항하여 견고한 요새를 세웠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으로 만든 작품인 하늘과 당신이 정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볼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당신은 그들을 천사보다 조금 낮추셨고, 영광과 존귀로 그들을 면류관으로 씌우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 손으로 만든 것들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그들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모든 양 떼와 가축 떼와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길을 헤엄치는 모든 것을. 주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위엄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행위를 기념하지만, 절정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그들에게 존귀, 위엄, 품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6절: 당신께서 그들을 당신 손으로 만드신 모든 일을 다스리게 하셨고, 모든 것을 그들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무언가를 발 아래 두는 것은 복종하거나 다스리거나 복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서 시편 8장은 아담의 이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인간의 이상을 다시 그려보지만, 여기서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창세기 1:26~28과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의도하신 인간을 상상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과 죄 때문에 시편 8편의 이상은 왜곡되었고, 창세기 1장과 2장,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을 너무 깊이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행위와 아담과 이브를 그의 형상을 지닌 자로 세우고 그의 대표자로서 창조물을 다스리려는 의도를 살펴보면, 아담의 사명은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이 주제들이 얼마나 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다시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에게서 나올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담과 이브가 원래의 동산에서 그의 백성으로서 하지 못한 것을 회복하고 성취하고 성취하기 시작하도록 선택하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도 같은 것을 봅니다.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 1장과 3장, 시편 8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실패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옮겨졌고, 그 사명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고 궁극적으로 예언적 본문으로 이어지는 몇 가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본문이 창세기 1장 26~28절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몇 가지 본문을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맥락에서, 창세기 17장 2절. 그러면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너의 수를 크게 늘리거나 너의 수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성취하면서 그를 만들 것이라는 약속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는 그의 자손을 늘릴 것이다. 그들은 별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다 등등.

그래서 17장 6절에서, 나는 너희를 매우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여러 민족을 만들 것이며, 왕들이 너희에게서 나올 것이다.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가나안 온 땅은 외국인이다.

나는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본문을 읽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은 1장에서 아담에게 한 약속의 직접적인 성취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하리니 네 후손이 원수의 성읍을 차지할 것이요 네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성함이 번성하여 별과 하늘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질 것을 다시 주목하라.

출애굽기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거나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1장 7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세대의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번성하여 크게 번성하고 수가 불어 나서 땅이 그들로 가득 찼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우리가 앞서 읽은 언약 공식의 맥락에서 나오지만, 레위기 26장 9절에서 우리는 다시 번성하는 이미지, 즉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번성하고 증가하고 번성하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9절. 내가 너를 은혜로 돌보고 너를 번성하게 하며 너의 수를 늘리고 너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키리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의 언어와 공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적 본문 몇 개를 읽어볼 수 있다면. 이사야 51장 2절과 3절. 이사야 51장과 다시 한번, 우리는 이미 이사야의 본문 대부분, 특히 40절에서 55절까지의 중앙 부분에서 이사야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유배에서 구출하고 구원하실 것을 예상하고 51장 1절과 2절. 의를 추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네가 베어진 반석을 바라보고 네가 깎인 채석장을 바라보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내가 불렀을 때 아이를 낳은 사라를 보라. 그는 오직 한 사람이었으나, 내가 그에게 축복을 내려 그를 번성하게 하였고, 아니, 내가 그를 번성하게 하였고, 에스겔서 36장에서 한 가지 참고 문헌만 더 살펴보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본문이 많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의 예언적 본문에서 한 가지 참고 문헌을 더 살펴보자.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다른 주제들과 연관지어 살펴보았는데, 유배에서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수립하시는 맥락에서 나온 또 다른 본문이 36장 9~12절에 나와 있다.



사실 8절부터 시작하겠지만, 이스라엘 산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들이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언어와 비슷하게 들린다. 나는 너희를 염려하고 너희를 호의로 여길 것이다. 너희는 쟁기질되고 씨앗이 뿌려질 것이고 나는 많은 사람이 너희에 살게 할 것이다. 그렇다. 모든 이스라엘이 성읍에 거주하게 되고 폐허가 재건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 사는 사람과 동물의 수를 늘릴 것이다. 그것은 둘 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한 사명을 반영하며,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나는 예전과 같이 너희에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너희를 전보다 더 번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너희에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너를 소유하고, 너는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너는 다시는 그들에게서 자녀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본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중 일부를 다른 본문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본문이 일부가 묶여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모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지닌 자, 즉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온 땅에 퍼뜨려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해야 했던 일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고 번성하는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여 아담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중요한 본문은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읽고 싶은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6절이며 5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방 중에서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요 온 땅이 나의 것이기는 하지만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이스라엘이 지금 왕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그들은 열매 맺고 번성하여 통치해야 합니다. 그들은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퍼뜨리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과 죄로 인해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이루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분명히, 아시다시피, 이야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또한 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고, 그것은 우리를 신약 성경 본문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아담이 신의 형상을 반영하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성취한 구약 성경의 또 다른 본문은 다니엘 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살펴볼 또 다른 본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본 사람의 아들에 대한 환상은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짐승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통치자와 왕국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사람의 아들, 즉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어 통치할 것이며, 그의 왕국이 그들의 왕국을 대체할 것입니다. 저는 전체 구절, 특히 네 짐승에 대한 설명을 읽지 않겠지만, 9절부터 시작하여, 왕국과 통치자를 상징하는 이 네 짐승에 대한 그의 환상의 끝부분, 8절부터 시작하여, 내가 이 마지막 짐승에게 있는 뿔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앞에 또 다른 뿔, 작은 뿔이 있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돋아났고, 처음 뿔 중 세 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습니다. 이 뿔은 사람과 같은 눈과 자랑스럽게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 그리고 나는 보았고, 왕좌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좌는 통치권, 왕권, 권위의 상징입니다. 왕좌들이 자리 잡았고, 태고의 날들이 앉았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고, 그의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고, 그의 왕좌는 불로 타올랐고, 바퀴는 모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왕좌에 의해 입증된 그의 통치의 맥락에 있습니다. 불의 강이 흘러나와 그의 앞에서 나왔습니다. 수천, 수천의 사람들이 그를 모셨습니다.

만 번 , 만 번이 그 앞에서 있었습니다. 법정이 자리 잡았고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 마지막 짐승에게서 뿔이 말하는 자랑스러운 말 때문에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파괴되어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질 때까지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짐승들도 그들의 권위, 통치, 권세, 왕권을 박탈당했지만, 그들은 얼마 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내가 환상 속에서 보니, 내 앞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자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셔서, 그는 태고의 날의 분에게 다가가서 그의 면전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권세와 영광과 주권적 능력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의 사람들이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의 왕국은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 7장에서,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한 환상에서, 저는 그가 한 사람을 보고, 결국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온 땅을 다스리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해석받는 부분에서, 흥미로운 점은 7장에서 인자가 이스라엘을 단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고,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단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단체 백성이 통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줄 사람에 의해 대표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담과 같은 인물인 인자의 모습을 예상하는 것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우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할 것입니다. 그는 이제 권세를 받고, 주권을 받고,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영원히 지속되고 결코 파괴되지 않을 왕국을 가지고, 7장에서 앞서 언급한 네 짐승 같은 세력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7장은 우리에게 거의 누가 이 사명을 완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 왕국을 가져올 이는 누구인가?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 시편 8장에서 인류를 위해 의도하신 모든 창조물에 대한 통치를 다시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가 신약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할 첫 번째 사항은, 여러분은 이것이 깨진 레코드처럼 들릴 것이고, 이것은 너무 자주 반복될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주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성취되거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스스로 함으로써,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여 땅을 다스리고 땅을 채우는 것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과 인간이 하지 못했거나 예수님이 행하신 죄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확장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들 안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복음서 전체와 나머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입니다. 그 중 일부는 하나님의 형상을 매우 명확하게 언급하고 일부는 조금 더 암묵적으로 언급하지만, 여전히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형상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작점은 아마도 상당히 명확한 예일 텐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누가의 족보일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마태의 족보가 주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하지만 누가는 예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는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약 30세였습니다. 그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족보는 예수를 37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므두셀라의 아들이고, 므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고,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고, 야렛은 마할렐의 아들이고, 마할렐은 케난의 아들이고, 케난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3장 22절로 돌아가서, 예수의 세례의 절정이 끝날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태로 그에게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예수는 이미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립되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지만, 예수의 족보는 예수가 마지막 아담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를 아담과 연결시키는 듯합니다.

예수는 이제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이룰 사람입니다. 또는 예수는 하나님의 참 아들, 하나님의 참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이제 이룰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탄이 예수를 유혹한 것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고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에서 보았듯이, 마찬가지로 그는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는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로서 시험에 통과하고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과 4장, 4장의 전반부, 광야에서의 시험, 사탄의 유혹은 적어도 다른 어떤 일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연결시키는

듯합니다.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참 아들이며, 아담이 하지 못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를 참된 형상을 지닌 자입니다. 또 다른, 아마도 반쯤 명시적인 본문이 발견되는데, 사실 하나의 구체적인 본문이 아니라 공관복음서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주제나 칭호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인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리스도나 그리스도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주제를 다룰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 명칭 중 하나는 인자이고 아마도 예수의 칭호인 인자일 것입니다. 예수가 그 칭호로 독특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그것은 다니엘 7장 14절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는 자신이 다니엘 7장 14절에 나오는 높여진 천상의 인자, 즉 온 땅을 다스리라는 아담의 사명을 성취하는 인자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예수의 칭호인 인자에 함축된 것은 그가 아담의 다스리라는 사명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왕국을 받고, 권세를 받고, 모든 창조물과 땅의 모든 사람을 다스림으로써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명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반명시적으로는, 인자도 하나님의 형상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형상, 참된 아담이며,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원래의 사명을 다스렸지만, 그는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발견되는 또 다른 암묵적인 개념이나 주제는... 우리는 실제로 다음 주제에서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다루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기 위해 오신 것은 다가올 왕국에 대한 구약의 기대를 성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려는 의도는 궁극적으로 아담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왕, 다윗의 약속된 아들로 제시합니다. 그는 다윗의 약속된 왕권을 시작하고 성취하기 위해 오셨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창세기 1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암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왕국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도, 또는 암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된 왕국을 성취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아담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새 창조물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조, 새 창조, 땅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논의했던 복음서, 특히 그의 기적, 그의 치유, 즉 원래 창조에 대한 죄의 효과를 역전시킨 예수의 부활을 통해 예수는 새 창조를 개시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는 새 창조에 대한 새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창조에서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부활, 치유, 기적을 행함으로써 예수는 새 창조를 개시합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그가 새 창조를 개시한다는 사실은 그를 아담과 연결시키고, 다시 말해, 암묵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를 요약하자면, 그때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가 아담의 완벽한 형상이며, 이제 아담과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특히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에게 위임한 사명을 성취하는 데에 여전히 어느 정도 강조점을 두고, 특히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제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아담에게서 먼저 성취되어야 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옮겨지거나 성취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다시 한 번 본 것처럼, 예수가 참된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의도, 목적,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써 그의 백성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지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담의 완벽한 이미지이며,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고 성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참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첫 번째 중단점은 고린도 전서 15장일 것이고, 우리가 살펴볼 나머지 본문의 대부분은 바울의 서신에 있지만, 아마도 다른 신약 문서 한두 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할 것입니다. 계시록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 주제가 이미 그러나 아직 구조에 참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 안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아담의 형상이 완성된 회복과 완성된 성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 논의하는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요 주제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주요 주제는 사실 모든 신의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예수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주장하듯이 예수 자신이 부활했다면 그것은 첫 열매이거나 앞으로 올 더 많은 부활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했기 때문에 미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주장의 일부는 죽음이 궁극적으로 패배해야 하는지, 아담의 첫 번째 죄, 첫 번째 아담의 죄와 첫 번째 창조의 결과로 온 죽음, 그 결과로 온 죽음, 그리고 다시 창세기 3장과 모든 사람이 죽는 창세기의 후속 장을 읽어보면, 그 죽음이 패배해야 한다면 궁극적으로 부활의 몸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기본적으로 죽음이 여전히 마지막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마지막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물리치려면, 그저 내세만이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존재만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의 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과 그 다음 구절에서 그는 예수의 부활을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의 맥락에서 논의하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 번째 아담의 죄의 결과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45절부터 시작해서 44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자연적인 몸이 있다면... 그런데, 저는 2011 NIV에서 읽고 있습니다. 만약 자연적인 몸이 있다면, 또한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몸이라는 말로 바울은 비육체적인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육체적인 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썩지 않는 존재와 썩지 않는 새 창조에 적합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땅의 흙으로 되었고, 두 번째 사람은 하늘로 났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그러했듯이, 땅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러하듯이 하늘에 속한 자도 그러하니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녔던 것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닐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노니,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살과 피가 그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몸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스스로 모순됩니다. 다시 말해서, 살과 피는 우리의 썩을 수 있고, 필멸적이고, 죄에 감염된 몸, 이 존재의 영역에서 사는 타락한 몸을 나타내는 일종의 관용어이며, 썩지 않고 새로운 창조물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과 대조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특히 49절에서 이 언어를 주목하세요. 우리가 지상의 사람의 형상을 지녔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함축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도 그의 형상을 지닐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 그 형상을 지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담은 그의 죄를 통해 죽음과 썩을 수 있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서, 그가 주시는 영을 통해 생명을 가져오시고, 생명을 가져오시고, 생명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창조에서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존재에 적합한 몸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영으로 주입되어 새 창조에 적합한 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궁극적인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영이 부여한 생명, 아담의 죄로 인해 초래된 죽음을 통해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역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지금 변화되었고 아직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은 죄로 훼손된 아담의 형상이 우리가 지닌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됨으로써 회복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영을 받음으로써 타락의 결과와 죄의 결과를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두 번째 아담과 합하여 오는 부활입니다.

이제, 이와 비슷하게, 백업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길게 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읽었기 때문에 몇 구절만 읽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5:12-21은 비슷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로마서 5:12-21은 그리스도와 아담을 길게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아담이 죄의 행위로 인류를 죄와 죽음에 빠뜨린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한 번의 순종의 행위로 역전시키고, 이제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 행위도 두 번째 아담의 순종으로 극복되는 것 같습니다. 5장 14절에서 말했듯이, 그는 첫 번째 아담이 유형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다른 아담을 예견하는 유형 또는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아담과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초래된 죄, 불순종, 죽음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고 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의 첫 번째 죄의 결과를 이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 아담과 동일시함으로써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변화함으로써 우리 안에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참 아담은 누구이며,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을 이렇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우리는 모두 28절을 알고 있지만, 때때로 다음에 무슨 일이 오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익하게 일하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다시 한 번, 로마서 8:28과 특히 29는 궁극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아마도 우리가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아담-그리스도 비교와 함께 읽은 것을 가정하고, 이제 우리가 회복된 형상은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신의 형상을 지닌 자로 의도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아담에게 속함으로써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써 말입니다. 바울 서신, 특히 나머지 신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또 다른 본문은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특히 9절과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즉, 형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한 것을 반복하자면, 옛 사람이나 새 사람이나 옛 자아와 새 자아라는 언어는 내 존재의 어떤 존재론적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새 자아나 새 나라는 것, 또는 존재론적으로 나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 새로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새 자아와 옛 자아라는 이 언어에서, 저는 실제로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오래된 번역을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머리에 속한다는 생각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은 우리의 머리인 아담이고, 아담 안에 있는 나이며, 아담에게 속하고, 아담의 통제 아래 있고,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 또는 옛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향의 영역 안에서, 의로움, 삶, 성령을 받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나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옛 자아, 새 자아, 또는 옛 사람, 새 사람이라는 언어도 다시 아담의 언어,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대조를 반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10절 후반부,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식이 새롭게 됨은 저자가 창세기 1장, 특히 26~28장,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용하거나 암시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콜로새서 3장, 특히 10절에서 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콜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의 맏아들이시라는 말씀을 읽고서 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인간이 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신이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바울이 예수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신의 형상이라고 말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신의 형상인 자로서,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을 반영하고 드러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창세기 1장의 메아리를 주목하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17절, 그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함께 서 있습니다. 18절,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부활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선, 골로새서 1:15-18에서, 그리스도는 기능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형상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반영이시며, 그는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며, 그는 창조 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1장 18절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또한 그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시작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취할 것이고,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1장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담과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며, 그는 지금 다시 한번 새 창조를 시작합니다. 예수는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입니다.

그럼, 이 과정의 다음 섹션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이 골로새서 3장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몇몇 다른 신약 성경 본문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신의 형상, 1부입니다.